## 테마칼럼

생명과 밥상 | 여성과 소비 | 교단일기 | 스토리텔링 파워

이근택

# 눈 오는 날이면 산에 오르자

교정의 호랑가시나무는 허풍쟁이다. 잎마다 다섯 개의 뾰족한 가시가 있는데 마치 호랑이의 발톱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다. 가소롭다. 잎의 가시만으로 그 빨간 열매를 지킨다는 건 어림없는 일. 배고픈 새가 와서 날개를 으쓱하고는 거침없이 쪼아 먹을 것이다. 조그맣고 선명한 그 열매.

반짝이는 잎과 철모르는 열매를 달고 떠들어대는, 호랑가시나무 같은 아이들과 함께 선생은 또 이 겨울을 지낸다. 즐겁다. 아이들은 미래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밝고 희망적이다. 때로 무모하고 때로 엇나갈 때도 있지만 그게 무슨 큰일이겠는가. 한걸음 쉬었다 다시 가면 그만인 것을.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 제대로 공부 좀 해 보겠다고 다짐한 애가 있었다. 1년 반이 넘도록 3시간만 자고 공부하였단다. 그래서 너무 지친 몸과 맘으로 낮에는 늘 잠만 자는 아이. 부끄럽고 미안했다. "그래, 그게 무슨 큰일이겠냐. 괜찮아. 너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의지의 사나이. 그동안 인간의 한계에 도전해 본 거야. 이제부터는 자면서 공부해!"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공부와 성적과 대학만을 바라보고 사는 학교가 싫었다고 했다. 한동안 종적을 감췄다가 돌아온 아이. "세상은 어땠어?" "힘들었어요." "왜?"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돌아온 거야?" "고등학교는 졸업해야겠어요." 회피해 버린 대답을 억지로 듣지 않기로 했다. "돌아와 줘서 고맙다. 이제부터라도 선생님이 잘할게." 아픈 맘으로 어깨를 두드렸다.

호랑가시나무는 제 몸을 두꺼운 가시 잎들로 감싸고 있다. 하지만 그 가시로 열매를 지킬 수는 없다. 빨간 열매는 본래 세상을 붉게 하는 것, 새의 주린 배를 채워주는 것, 반짝거리는 잎은 본래 세상을 푸르게 하는 것, 어떤 새에게 가시 뒤의 열매를 쪼아 먹는 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눈이 오면 더욱 새빨개질 호랑가시나무 열매를 가까이 들여다본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눈이 내리면 아이들과 함께 산에 가야겠다. 그날은 눈이 아주 많이 왔으면 좋겠다. 무등산 산장 행 버스도 다닐 수 없을 만큼 많이 쌓여서 세상이 적막하였으면 좋겠다.

그날은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문빈정사를 지나, 뽀드득거리는 눈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다른 등산객들처럼 점잖게, 가지고 온 초콜릿도 물과 함께 나눠 먹으며 증심교를 지날 때까지는 그렇게 갈 것이다.

약사암으로 가던 길을 왼편으로 돌려, 당산나무를 향해 가는 언덕을 오르겠다. 다른 행렬들 다 흩어지고 우리들만의 세상이 되면, 아이들은 눈 덮인 덤불을 헤쳐 멧새 소리를 따라갈 것이다. 아이들은 맵찬 바람과 함께 달려드는 눈송이도 받아먹을 것이다.

가지 위의 눈송이를 일없이 툭툭 쳐대는 아이들, 지워진 발자국 위로 또 다른 발자국을 꾹꾹 눌러 찍으며 힘차게 가는 아이들, 가파른 언덕에서 자빠지고 미끄러지면서 또 서로 일으켜 주면서, 깔깔대며 장난치는 아이들, 눈 속에서 눈이 된 아이들과 함께 산에 오르는 눈 덮인 산.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얼음이 얼어 햇살에 반짝거리는 아이들은, 본래 산에서 살았던 것처럼 산짐승의 눈빛을 하고, 사나운 눈싸움을 해댈 것이다. 은행나무 우듬지를 향해 눈덩이를 날리며, 헐떡거리며 더운 김을 내품으며 새빨개진 얼굴로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새 눈에 파묻힌 산등성이, 중머리재에 올라서서 메아리를 불러대고 있으리라.

무수히 흔들리는 수많은 억새들의 빈 가슴을 위로하기 위해 또 뼛속까지 스며오는 칼바람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본격적으로 편을 가르고, 부둥켜안고 뒹굴며 함성을 지르며, 눈싸움계의 가장 커다란 전쟁을 치러내야 한다.

그리고 가지고 간 먹을 것을 모두 해치우고 미리 준비한 비장의 눈썰매, 크고 두꺼운 비닐봉지를 깔고 퍼질러 앉는 거다. 두 다리를 치켜들고 꼬리뼈를 중심으로 방향을 잡으며, 올라왔던 눈길을 따라 내려가자. 두 눈 부릅뜨고 큰 소리로 진군가를 부르자.

수많은 바위와 나무와 계단과 낭떠러지를 피해 활강하는 스키 선수처럼, 때로 허공을 날기도 하며 엎어지기도 하며, 아파서인지 좋아서인지 알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시끄러운 인간들의 세상으로, 더 요란하게 더 힘차게 다시 내려가는 거다.

〈광주일고 교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종교칼럼

김재영

# 부부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길 때

젊은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가 이혼문제를 놓고 상담을 했다. 참고 지내라고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이는 자기가 맡겠다고 서로 고집이다. 생각다 못한 목사님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러면 차라리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하나씩 데리고 헤어지면 될 거 아니냐고, 부부가 동의를 하고 함께 돌아갔다.

1년쯤 되는 어느 날, 목사님이 길에서 그 부인을 만났다. 반색을 하더란다.

그 후에 아이 하나 더 낳고 헤어졌느냐고 물었더니 못 헤어졌다고 웃으면서 대꾸하더란다.

출산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왜 이혼 안 했느냐고 물었더니 "글쎄 말예요, 쌍둥이를 낳았지 뭐예요. 또 숫자가 안 맞아 이혼 못했지 뭐예요." 하면서 행복한 웃음을 짓더란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도 살다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터져나오게 마련이다.

맞는 점보다 안 맞는 점이 더 눈에 뜨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피차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 "올바른 결혼의 기초는 상호 간의 오해에 있다"고 익살을 떨고 있다.

피차 서로 오해해서 결혼하지 속속들이 다 알고 나면 이 세상 남녀 중에 몇 쌍이나 결혼하겠느냐는 말이다.

막상 결혼을 하고 난 다음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길 때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가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첫째, 헤어진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쉽게 이 방법을 택한다. 그러나 헤어지게 된 원인의 반이 내게 있는데 그 심성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 살아도 비극은 계속되게 마련이다.

둘째, 상대방을 내 마음에 맞게 뜯어고치려고 일생 고생한다. 남자는 완력으로, 여자는 바가지로, 그러나 상대가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새지 않는 그릇에서 물새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일생 헛수고다.

셋째, 상대방을 있는 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변화해 간다. 그러면 어느 날엔가 상대가 서서히 변화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다. 단점은 아무리 지적해도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서로 관계에서 둘의 장점이 합해지면 좀더 나은 인생을 꾸려 갈 수 있다.

배우자의 단점이 보이면 그 단점을 고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연약함을 도와주어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다.

마지막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끝으로 '행복한 부부'라는 시를 소개한다.

처음 눈길을 맞춘 이후/ 난 나의 반쪽이/ 완전히 나와 같은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때론 왜 나를 닮지 않았느냐며/ 공연한 트집을 잡아/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때론 문득문득 피어나는 미련으로/ 또 나와는 전혀 다른/ 나의 반쪽을 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을 보면서/ 혹시 잘못 찾은 것을 아닌가/ 생각도 했었습니다./ 무수한 세월을 지나/ 그 아픈 가슴 추스를 엄두조차 내지 못할/ 지금에서야 이 아둔한 사람은 알았습니다./ 나의 반쪽은 별과 바람과 구름 속에/ 시와 소설, 음악과 영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며/ 나와 똑같은 모습이 아닌/ 오히려 나와 다른 모습으로/ 나의 날카롭고 모난 부분을 감싸주며/ 부족한 부분을 매워 주는/ 바로 내 눈앞의 당신이라는 것을

〈광주성안교회 담임목사〉

## 기고

이병록

# 나눔! 행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서양의 기부문화는 로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공중목욕탕, 도서관 등 대중 이용시설들은 로마 귀족들이 로마시민들에게 주는 선물이고 의무였으며, 시민들은 당연히 누리는 권리로서 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즉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정해져 있는, 쓰고 남은 것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다.

우리 조상은 상부상조하는 삶의 방법으로서 '품앗이'라는 '나눔'을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아왔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구분되지 않고, 그 대상은 시간, 노동, 물건, 정 등 모든 분야가 망라되어 필요할 때마다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느끼고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의 생활이 우리의 이웃돕기라는 기부문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는 냉철한 머리의 기부가 아닌 뜨거운 심장이 시키는 나눔이라는 삶의 철학에서 기인한 것이다.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겨울철이 되면 아시아문화전당 앞에는 크리스마스트리와 '사랑의 행복온도 탑'이 세워진다. 그리고 사람들의 옷깃에서는 빨간 '사랑의 열매'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사랑의 열매, 사랑의 행복온도탑과 함께 우리를 찾아왔던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올해도 22억 모금을 목표로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희망2012나눔캠페인'을 전개한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3년 동안 300억원을 모금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에도 저소득층 37억, 아동청소년 17억, 장애인 6억, 노인 3억 등 63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한 법정단체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기부금이 점차 감소하면서 최근 3년간에는 캠페인 모금 목표액마저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16개 시·도중에서 광주는 제주도 다음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의무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복지욕구를 국가가 다 책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이후 각 계층 간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공동체의식마저 약해져 가고 있다. 공동체의식의 실종은 곧 사회불안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나 포르투갈과는 달리 우리가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를 딛고 2년 만에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나 기업만의 힘이 아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장롱 속의 금붙이를 내놓을 줄 아는 희생 정신이 가장 큰 밑거름이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나눔과 연대의 대동정신이 살아있는 고장이다. 지난 연말에도 광주시청 모금함에서는 익명의 기부자가 놓고 간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가 발견되었고, 고등학생들은 추운 겨울 홀몸노인들을 위해 용돈으로 연탄을 사서 배달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은 교통비를 모아 기탁하는 등 아름다운 손길들이 하나 둘 모여 따뜻한 사랑의 물줄기를 만들어냈다.

'희망2012나눔캠페인'도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또, 2012년 새해에는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웃이 없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광주'가 되기를 소망한다.

〈광주시 행정부시장〉

# 보험사들 툭하면 소송… 보험금 안주려는 속셈인가

최근 지인이 질병이 생겨 보험특약대로 수술과 각종 치료비 20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 돈 200만원 때문에 소송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지만 이러는 보험회사가 너무나 괘씸했다. 결국 1, 2심 모두 이기기는 했지만 몸과 마음은 완전히 지쳐버렸다.

필자도 아이들 두 명의 교육보험과 상해보험, 그리고 부부가 암보험과 다른 질병에 관한 특약보험을 들고 있다. 아마도 이런 보험 몇 개씩은 다 들었을 것이다.

보험이란 무엇일까.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불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미리 돈을 마련해 두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할 때 도움은커녕 보험 가입자를 두 번 울린다면 그 보험사는 정말 나쁜 보험회사이다.

필자나 다른 보험가입자들 모두 이런 묻지마 소송의 경우에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즉 보험에 가입하라고 할 때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해서 가입시켜 놓고 정작 보험을 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거는 회사들. 어떻게든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사들의 묻지마 소송은 정말 사고로 힘든 보험가입자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인생을 살면서 나와 가족 누구에게든 병고가 생길 수 있다. 보험회사가 엄청난 돈을 바탕으로 배째란 식으로 소송을 걸면 가입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수차례 법정을 오갈 기력도 없어진다.

보험가입자들의 이런 이중고와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

▲김규근·광주시 서구 쌍촌동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 사설

# 취약계층 '쥐꼬리' 지원금 현실화 시급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기요금, 기름값 등 소비자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생활을 압박하고 있는 데도 경로당 난방비 등 이들을 위한 지원금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체감 고통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유류비, 공공요금 등이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지원금은 최근 3~8년간 동결돼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은 지난 8월 4.9%, 2일 4.5% 등 올들어 두 차례나 인상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보조하는 경로당 난방비의 경우 1곳 당 지원비는 월 50~60만 원이 고작이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는 8년째 제자리에 있어 경로당 대부분이 겨울나기에 버거운 실정이다. 난방유인 등유 판매가격이 현재 ℓ당 137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246원)나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난방비 장기 동결은 그야말로 '취약'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금도 7년째 하루 1끼 3000원으로, 자장면 1그릇 값(4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도 3년째 월 5만 원에서 묶여 있다. 경로식당 급식비와 거동불편 노인 식사 배달비도 하루 1끼 2000원으로 6년째 그대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육류, 채소류 등 하루가 다르게 뜀박질하는 장바구니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도 그만큼 부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경로식당의 부식 재료비를 후원금으로 충당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그마저 줄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광주시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취약계층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책정해야 한다. 겨울이 닥쳤는데도 복지 사각지대를 두고 복지 운운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 가정·사회가 청소년 자살로 내몰아서야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진학에 실패한 중·고교생부터 취업을 걱정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청소년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다. 물질만능사회에서 현실적인 좌절을 극복하지 못한 채 스스로 자살을 택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원룸에서 모 대학원에 다니는 A(25)씨가 취업문제로 고민해 오다 목숨을 끊었으며, 같은 달 25일에는 광주시 북구 한 고시텔에서 실직자인 C(21)씨가 우울증을 앓아오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4일에는 광주의 한 특목고 학생인 D(17)군이 국내 유명대학 전형에 불합격되자 부산에서 전동차에 뛰어들어 숨졌으며, 29일에는 북구에 사는 E(15)양이 중학교 중퇴에 고민해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 한 달 사이 광주에서만 청소년 자살이 6명에 이른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살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다. OECD 회원국 중 7년째 자살률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 자살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전남은 타지역에 비해 상황이 더 좋지 않다.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목숨을 끊은 초·중·고교생은 모두 74명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청소년 자살건수(724명)의 10.2% 수준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 사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가정과 사회의 폭넓은 이해와 배려는 물론이고, 정부 역시 국가적 당면과제로 인식해 서둘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살 예방교육 강화도 시급하다. 이미 핀란드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예방교육을 통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지 않는가.

## 無等鼓

### 굴 이야기

바탐둥이의 대명사 카사노바는 굴을 한 번에 12개씩 하루 네 번 먹었다. 프랑스 문학가 발자크는 한자리에서 무려 1444개를 먹어치웠다는 기록이 있다. 나폴레옹과 비스마르크도 애호가였다.

정력적 혹은 열정적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이들 명사(名士)들이 하나같이 즐긴 음식이 바로 굴이다. 인간은 매일 아연을 섭취해야 한다. 아연이 부족하면 정자 숫자가 줄고,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연을 '섹스 미네랄'이라고 한다.

굴이 인기있는 이유는 비단 건강이나 정력 때문만은 아니다. 글리신이나 글루타민산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해 워낙 맛이 좋다. 아미노산은 우리 혀에서 '맛있다' '달다'라고 느끼는 감칠맛 성분이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굴은 바다 어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며 먹으면 향미(香味)가 있고 보익(補益)하며 피부를 아름답게 하고 안색을 좋게 한다"고 기술했다.

서양에서는 기원전 1세기부터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굴양식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한국에서는 선사시대 패총(貝塚)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조개가 굴이다. '동국여지승람'에는 강원도를 뺀 전국 칠십 고을의 토산품으로 굴이 기록됐다.

하지만 언제부터 굴양식이 시작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1908년경의 정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섬진강 하구에서 일부 양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1908년 이후부터는 일본인에 의해 영산강 하구 등지에서 양식업이 시작됐다.

전남이 굴양식의 본거지인 셈인데, 섬진강에는 강굴이 유명하다.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망덕포구에 서식하는 강굴은 바닷굴에 비해 크고 영양면에서도 월등하다. 매화꽃이 필 무렵에 맛이 가장 뛰어나다고 해 일명 '벚굴'이라고도 한다.

굴의 아미노산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함량이 늘어난다. 마침 여수부터 굴양식 재해보험이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재해 걱정없이 양식을 하면 식탁에 굴이 더 자주 오르게 돼 가정의 행복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경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7-96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기획사업국 2200-55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